

# 은행 뭉 줄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할인배당' 도입

## 주택 경매시 주담대 연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 신청 차액 보증금으로...작년까지 채무분할 등 6400억 혜택

주택 경매에 할인배당 방식을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액을 늘려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과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해로 인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프로그램,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을 경우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적용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이같은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작년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4062건, 3957억원), 잔여채무 장기분할 상환(2830건, 2389억원), 피해자가 피해 주택 낙찰 시 대출규제 완화(71건, 96억원) 등 총 6442억원을 지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첫줄 가운데)이 군산세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새만금 신항만 개장·위험화물 통관 등 적극 대응”

### 강태일 광주세관장, 군산세관 방문 현안 점검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이 군산세관과 보령지원센터 방문해 새만금 신항만 개장 등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강태일세관장은 지난 12일과 13일 군산세관에서 오는 12월 새만금 신항만 개장에 대비한 통관·감시 준비상황과 해

상특송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단속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어 보령지원센터 방문해 유연탄·LNG 부두 등 항만 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태일 광주세관장은 특히 새만금 신항만 개장에 대비해 빈틈없는 준비와 위험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당부하면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확보와 관련해 군산·보령지역 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 반입 차단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농지 임대수탁 '디지털계약' 호응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등 편의개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영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먼저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 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 시간 또한 크게 줄었다는 평이다.

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게 했는데,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찾아 여러 차례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했다.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디지털 장구(태블릿)를 마련하고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 콘진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기업 지원 예비 창업팀 등 32곳...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소 게임기업과 초기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 게임 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32개 중소 게임기업과 예비·초기 창업팀을 선정해 입주 공간과 개발 기반 시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 8~9층에 위치한 게임 산업 지원 거점이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 게임기업과 창업 5년 미만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팀을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다양한 개발 인프라를 제공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상반기 1차 모집을 통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 14개사, 게임벤처4.0 18개 팀 등 총 32개사를 선정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을 비롯해 게임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모바일·가상현실(VR) 게임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개발 인프라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게임 산업의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과 인공지능(AI)을 연계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게임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션

## “AI예산 10조...광주·전남 협력해 AI 혁신거점 도약을”

### 광주연구원, '정부 AI정책방향과 지역특화 전략' 보고서 발간 초광역 버티컬 AI 벨트·집적단지 1호 지정 등 10대 과제 제시

정부가 올해 약 1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인공지능(AI) 예산을 편성하며 국가차원의 AI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과의 행정통합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 AI 혁신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연구원은 최근 '2026년 정부 인공지능 정책방향과 지역특화 전략과제'를 주제로 한 광주정책포커스를 발간하고, 정부 인공지능 정책 흐름에 대응한 지역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19개 부처의 올해 업무 보고에 포함된 인공지능 활용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광주가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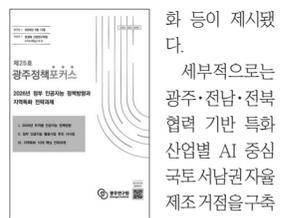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전 분야 AI 혁신 가속화, 범국가 AX(인공지능 전환) 협업 강화, AI 기반사회 구현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추진 과제

에는 광주 지역 규제 프리존 적용,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광주·충북 AI 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역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 핵심 전략과제로 10개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지역 전략산업 기반 초광역 버티컬 AI 벨트 구축 △지역대학 연합 기술우위 AFS(AI From Scratch) 연구개발 강화 △헬스케어 분야 센서 기반 메가 샌드박스 모델 구현 △디지털 트윈 활용 산업용 AI 안정적 운영 전환 △지능형 로봇 기반 제조 에이전트 AI 확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1호 지정 △AI 유치기업 연계 명품 강소기업 기술 고도화 △AI 윤리·안전·신뢰 기반 포용적 AI 구현 △CES 혁신 포럼 개최를 통한 성과 공유 및 교류 활성화



가 등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전남·전북 협력 기반 특화 산업별 AI 중심 국토서남권 자율제조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자율주행 등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프리 기술개발과 실증 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공식 지정해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경록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기반으로 AI 중심 산업융합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공지능 인프라와 기업, 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 특화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구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남광주농협,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상' 수상

### 농업인 실의 증대 기여 등 지역사회 발전 공로 인정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은 '2026년 위더스(With-Us) 상'에 남광주농협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남광주농협 본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NH농협손해보험 김철회 부사장, 문익주 광주총국장 등이 참석해 이영중 남광주농협 조합장에 상패를 전달했다.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뭉뚱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농업인 실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농협의 권위있는 상이다.

김철회 부사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남광주농협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지원과 지역 농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 실의증대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세풍항만배후단지 기업 모집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세풍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부지는 임대면적 50년이상 부지를 제외한 총 35만㎡로 최대 50년까지 임대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임대기간과 임대료, 관리비 등은 표준 임대차계약서와 개별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세풍항만배후단지는 일부가 이차전지기 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해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항만공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입주조건업종 여부,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물동량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세풍항만배후단지는



광양항 배후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입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며 "우량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jjin@